

이제 潤松이 가셨으니 巨木이 쓸어져 뜨거운 별을 가려줄 그들이 없
어진듯 寂寞하다. 同人들은 故人的 뜻을 이어 本誌發展에 努力하여 往
生極樂하신 靈前に 供養하리한다. 考古美術同人

吊辭(普成中學校에서의 永訣式 吊辭)

金 庠 基

潤松先生! 삶이 꿈인가요 죽음이 꿈인가요 지금이 자리에서 이런 말
씀을 드리는 것도 꿈인지요 도시 꿈만 같습니다.

潤松先生! 우리 걸어온 過去六十年이란 우리民族으로는 일찌기 걸
어보지 못한 荊棘의 길이었읍니다. 우리는 三十餘年동안 亡國의 恨에 잠
겼었으며 그 뒤를 이어 南北의 分斷으로 六・二五의 民族的 慘變을 겪었
던 것입니다. 이러한 民族的 受難期를 通하여 先生은 오로지 愛族愛國의
一念으로 살아 오셨읍니다. 그러기에 倭人의 손을 거처 흘어지고 사라지
는 우리의 民族의 文化財를 蒐集保存하기가 三十年을 하루같이 모든 힘
을 傾注하지 아니하셨읍니까, 멀리 日本에 가지 건너가서서 우리의 文
化財를 回收하실제 그 愛國의 熱誠은 在日 西洋사람까지 感動시키지 아
니하셨읍니까 그러한 結果로 오늘날 金이나 玉으로도 바꿀수 없는 數 많
은 우리 文化財가 이 땅에 지터있게되지 않았읍니까, 國寶展示에 있어서
도 潤松의 所藏品이 아니면 그 빛을 多彩롭게 發揮하지 못하는 現實입
니다.

潤松先生! 先生은 우리 教育界의 恩人이며 支柱이시었읍니다. 빼앗
긴 祖國을 다시 찾고 荒廢한 文化를 되살리는데에는 무엇 보다도 人材
養成과 後進指導가 急先務인것을 先生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시
었읍니다. 우리 母校 普成學校가 쓰러지려할 때에 先生은 온 私財를 기
울여 다시 이르게 세우시고 育成하여 오신것이 二十餘星霜입니다. 그동
안 많은 人材가 여기에서 길러졌으며 장차 永遠無窮히 길러지게 될 것입

니다.

潤松先生! 이 學校經營에 얼마나 勞心焦思를 하셨읍니까. 先生이 中
央醫療院에 入院하셨을 때에 問病간 洪校長과 李課長과 나에게 學校적
정을 하시던 일이 바로 보름 前인데 이제 웬 일입니까. 先生! 育營事業
과 文化財保存事業을 누구에게 맡기시고 가버리셨읍니까. 하늘이 원망스
럽고 땅이 야속히 씩니다.

潤松先生! 先生의 人格은 高潔하시고 天性이 溫厚하시며 名譽나 地
位같은 것은 돈 구름같이 보시고 오직 自己의 所信을 默默히 實行해 오
셨읍니다. 先生은 豊富한 修養과 經驗 그리고 端雅한 文翰의 솜씨와 淹
博한 鑑識力의 所有者이시었읍니다.

潤松先生! 先生의 感化와 薰陶의 힘은 實로 큰 바가 있습니다. 先生
이 길러내신 普成의 健兒와 先生을 私淑한 考古・美術學界의 人士는 實
로 多士濟濟의 觀이 있습니다. 先生의 남기신 뜻과 先生이 이르기신 事
業은 先生의 門生과 後輩가 뒤를 받들어 빛낼 것이오니 先生이시어 고히
잠드소서

壬寅 一月 三十日 金 庠 基 拜哭

潤松을 哭함

李 相 佰

潤松의 돌아가시는것이 너무도 意外의 일이고 금작스러웠기 때문에 몇
번이나 이 글을 쓰라는 督促을 받았으나 붓을 들 생각이 도무지 나지 않
았고 또 붓을 들어 보아도 쓸 말이 별로 없는 것 같다. 아직도 鍾路四街
의 좁은 골목을 들어가서 낮은 中門을 밀고 사랑마당으로 들어서서 소
리만 지르면 부드러운 열들로 潤松이 窓門을 열고 곧 나올 것만 같다.
潤松을 永永만나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나지 않는다.

내 病에 시달리고 閑暇한 時間을 얻지 못하여 얼마동안 潤松을 만나지